

복지·고용 9% 늘고 사회간접자본 15% 급감

정부처 예산 요구 살펴보니

내년 예산·기금 424조...6% ↑

일자리 창출·양극화 해소 중점

국방·교육 증가 문화·환경 감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처음으로 낸 예산 요구안을 집계한 결과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각종 정책을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요구는 15.5% 급감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중앙관서)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424조5000억원으로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6.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2014년에 제출한 2015년 예산 증가폭(6.0%)과 같은 것이다.

예산은 294조6000억원으로 올해(274조7000억원)보다 19조9000억원(7.2%) 늘었다. 기금은 129조9000억원으로 올

해(125조9000억원)보다 4조원(3.2%)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교육·연구개발(R&D)·국방 등 7개 분야는 올해보다 늘어난 반면 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영향으로 8.9% 늘어났다. 증가율로는 일반·지방행정(9%) 다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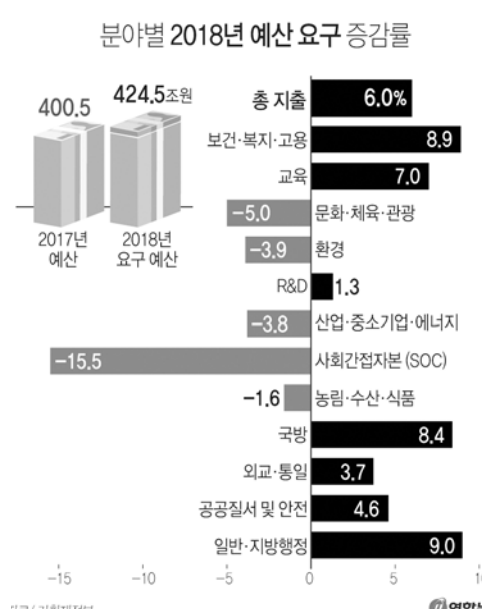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지출 증가가 예상돼 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목했다.

기재부 역시 지난달 19일 각 부처에 내려 보낸 예산안편성 추가지침에서 문 대통령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최우선 사업으로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의 복지분야 사업도 집중 발굴하도록 했다.

내년 예산 요구안 중 교육 분야는 내국 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면서 7.0% 증가했고, R&D는 4차 산업혁



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ICT(정보통신기술) 융합예산 요구 등으로 1.3% 늘어났다.

국방은 케미컬 등 북핵위협 대응 강화, 장비 채우 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8.4% 상승했다.

외교·통일은 남북경제협력 확대,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3.7% 늘어났다.

공공질서·안전은 불법조업 단속을 위

한 합정간조 지원으로 4.6%, 일반·지방행정은 지방교부세가 늘면서 9.0% 증가했다.

반면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체육 부문은 중심으로 5.0% 예산 요구가 줄었다.

환경은 상·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를 조정하면서 3.9% 감소했고 산업은 에너지·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노력으로 3.8% 줄었다.

SOC는 그간 축적된 시설을 고려해 도로·철도를 중심으로 15.5% 줄었고 농림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수요가 줄면서 1.6% 감소했다.

SOC의 경우 2016년 예산안에서 삭감됐다가 올해 예산의 경우 정부

안에서는 삭감이 추진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내년 예산안에서 다시 감소하면 3년 새 2번이나 삭감되는 셈이다. 지난해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SOC)에서도 SOC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남뉴스

정부부처에 요구한 광주·전남 내년도 주요 현안 예산

광주 가전·전장 산업 등 2조2000억 전남도 5% 늘어난 6조3000억 건의

정부가 예산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넘어감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9월 1일 제출될 예정인 기재부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 223건 2조2303억원을 건의했다. 이는 올해 국비지원 예산 대비 1.7%(380억원) 증가한 것이다.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 중 계속사업은 160건에 1조9827억원이며, 신규사업은 63건에 2476억원이다. 신규사업은 올해 대비 50.9%(835억원) 증가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국가 트라우마센터 건립(75억원) ▲장애인인권복지타운건립(40억원) ▲케네디드 가전·전장 융합산업 육성(391억원) ▲자동차 전장 부품품고 안전 지원체계 구축(50억원) 등이다.

SOC 신규사업으로는 ▲광주 순환고속도로(5구간)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예산 등도 포함됐다. 계속사업으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콘텐트 개발

(583억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플랫폼조성(60억5000만원)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248억원)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의 내년도 국고예산 목표는 6조3215억원으로 올해(6조205억원) 대비 5% 증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호반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그 어느때보다 현안 사업 예산 배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신규사업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차세대 에너지산업(ESS) 생태계 구축이 가장 큰 규모다. 사업기간은 2019년~2024년, 투입되는 예산만 4000억원에 달한다. 순천시, 광양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일원에 장주기 이차전지 성능평가 및 인žen터 구축,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센터 구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는 전남지역의 미흡한 기반시설 여건으로 인해 수년째 반복 건의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2018~2020, 480억원) 등 84건이 무더기로 건의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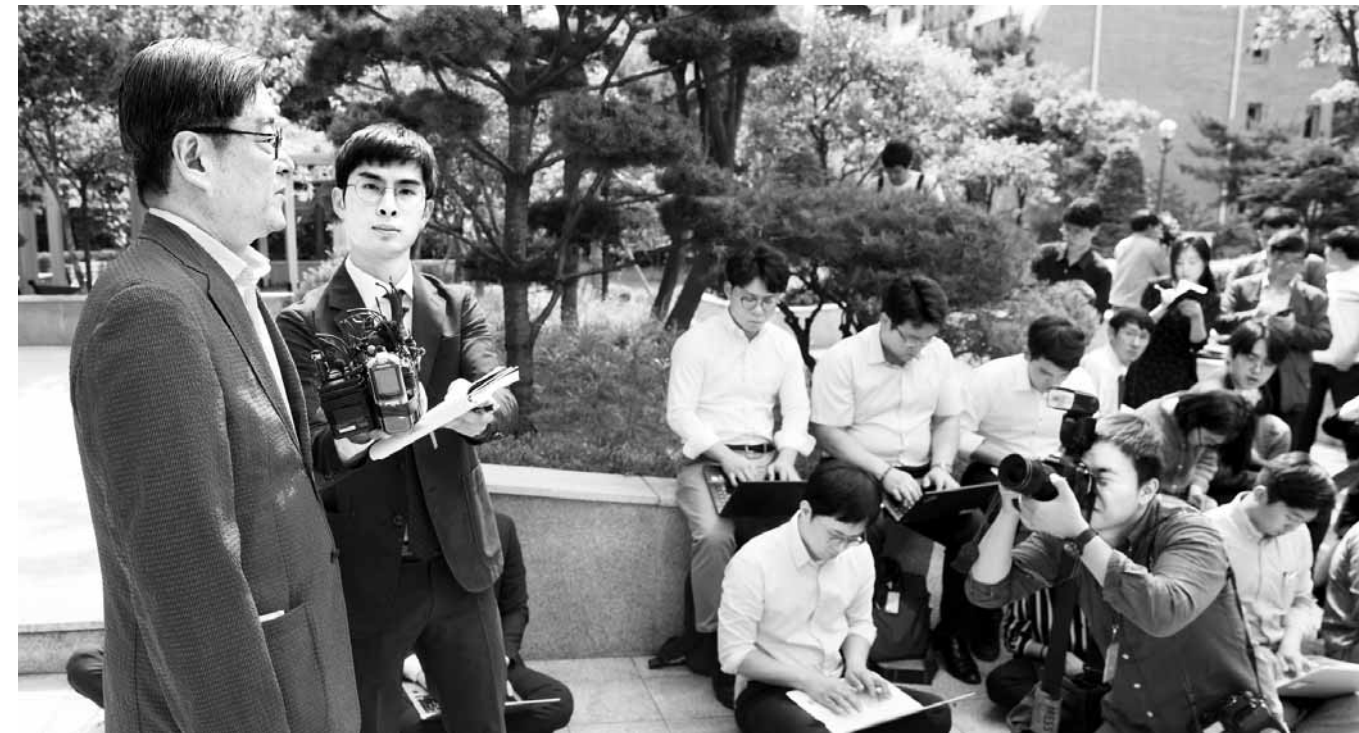
안경환 “검찰 독식 끝내겠다”... 법무부 탈검사화 의지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우선 과제로 '법무부 탈검사화 실현'을 제시했다. 검사들이 법무부 고위 간부 자리를 독식하던 오랜 관행이 깨지면서 자연스럽게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검사장 자리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후보자는 11일 내정 직후 기자들에게 돌린 '소감문'에서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직 현안 파악 등을 이유로 장관 취임 이후 업무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으면서도 유독 '법무부 탈검사화' 의지만은 숨기지 않은 것이 눈길을 끈다.

법조계에서는 67년 만에 사실상 첫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안 후보자가 내정 일선으로 '법무부 문민화'를 강조함에 따라 취임 직후 단행할 법무부 실·국장급 간부 인사부터 기존 인사 관행 허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그간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검찰 외에도 인권·교정·범죄예방·출입국 등 다양한 법무행정 분야를 관장하는 법무부 간부들을 '만능 행정과'미만 검찰 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남뉴스

위간부들이 독차지하는 인사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현재 법무부 9개 실·국 간부 중 검찰을 관리·감독하는 검찰국장은 물론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과장, 출입국본부장, 검찰관, 인권국장 등이 모두 검사장 및 차장검사급 검찰 간부들이다. 법무부 실·국·본부장 중 검

사가 아닌 이는 교정본부장 단 한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변인실의 경우 실장 체제가 아니라서 대변인(부장·차장검사급)이 이끈다. /연남뉴스

이주열 총재, 기준금리 인상 시사 긴축 신호탄...한은 '돈줄 죄기' 나서나

오랜 기간 저금리 기조를 이어온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통화 긴축'을 시사하는 신호를 내놓았다.

수출 회복에 따라 경기경색이 개선될 것으로 경기회복세가 확산되면 그동안 유지해왔던 완화적 통화정책을 재검토해 돈을 죄기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12일 오전 한은에서 열린 장립 제67주년 기념행사에서 "최근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수요측면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며 저금리 기조 유지를 언급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 검토를 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가 그동안 완화적 통화정책의 정도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행은 작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이주열 총재

인하해 사상 최저 수준인 현 1.25%까지 떨어뜨린 뒤 1년간 이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는 "우리 경제는 소비회복세가 여전히 완만하지만 수

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투자도 호조를 보이며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성장률이 4월 공표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정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성장세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최근 성장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려면 내부 구조적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다음 달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경기 흐름을 볼 테니 그때 다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연남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1. 성현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가 주택

1. 산전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보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장/토지/기타

1. 도천동 하남산단99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단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지리 1층일부주택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안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금호동 6층 건물(보증금 2.4억 월1,500만) 매 36억원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흑석동 5층 건물(보증금 3.4억 월1,500만) 40억원
- 하남동 3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무실 임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460만) 매 25억
- 쌍암동 4층 건물(보증금 1.3억 월 1,400만) 매 29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450만) 매 35억
- 신가동 4층 건물(보증금 6천만 월 520만)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토지

- 용전동 생산녹지, 대로전 9,400㎡ 매 48억원
- 산전동 생산녹지, 차고용지 3,810㎡ 20억
- 산전동 생산녹지 차고용지 도로전 990㎡ 5억원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아차장 적합)
- 광산구 내산동 임야 36,000㎡ 매 3억
- 남평동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담 3426㎡ 4억2천만원 (가든식당 적합)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높음, 남향)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3천
- 담양군 월산면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16억원
- 담양군 남면 화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차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광주바이블칼리지 신입생모집

현 전도사 사역자 특별우대! 여목사제도!

제10회 영천한마당

●일시: 2017년 6월 17일(토) ●장소: 본교 채물실

개회예배(11:00) 사모초청단
찬양 및 간증, 공연행사(14:00) 광주바이블칼리지
하귀선사모 찬양 간증, 국제기독교학생공연 등

광주바이블칼리지 소개

- 개척주의 보수교단에 속한 유망교수들의 수준높은 강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홍익인문신학교로 졸업후 목회(목사)로도 (여목사제도)
- 오랜 경력의 교수들로 정통하는 개혁신학 경의와 구속사적인 통상한 가르침
- 목회사역과 현직목사의 실재적인 수업

광주바이블칼리지 입학안내

모집인원: 수시모집
모집인원: 월연, 자선헌금, 화, 모요반 각 30명 내외
구비서류: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접수처: 본교 채물실
*등록금과 생활비에 관해서는 학교 문의 바랍니다.

본교 교수진

성명	신학박사	신학박사	신학박사
이은수	신학박사	신학박사	신학박사
김민수	신학박사	신학박사	신학박사
김민수	신학박사	신학박사	신학박사
김민수	신학박사	신학박사	신학박사
김민수	신학박사	신학박사	신학박사
김민수	신학박사	신학박사	신학박사
김민수	신학박사	신학박사	신학박사

광주바이블칼리지
42-34(성도리 산 72)
☎ 061-381-0000
바이블칼리지 카페
cafe.daum.net/biblecoll
학교 홈페이지 gjbc.kr